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연 무료 사전 예약

나바위성당 · 전라감영 진행 공연 14일까지 사전 예약 접수
한국소리문화전당 놀이마당 공연은 예약 없이 즐길 수 있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는 2024 소리축제를 앞두고, 공연이 중점적으로 펼쳐지는 한국소리문화전당 외에도 이색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연들을 기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4~15일 오후 8시, 한국소리문화전당 놀이마당에서는 탈춤과 음악, 대형크레인을 활용한 공중 퍼포먼스의 결합 공연 [프로젝트 날다X천하제일탈공작소] 나나네 나나노가 펼쳐진다. 14일 공연에는 '예술꽃향'도 함께한다. 공연은 무료로 예약 없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

15일 오후 5시, 한옥과 고딕 양식 그리고 동서양 건축이 조화를 이룬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명소인 익산 '나바위

성당'에서는 소리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콜라보 공연 [폴란드 포커스] 불로시X채수현 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역사성을 가진 공간 '전라감영'에서도 다채로운 공연들이 준비돼 있다. 15~17일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펼쳐지는 마타네 프로그램 '전주의 아침'은 3일간 각각 다른 콘셉트로 공연이 펼쳐진다.

15일 진행되는 <리코더와 정자가 들려주는 노래>는 바로크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정자 각각 김나리의 노래를 중심으로 중세부터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 조선시대 풍류방 노래까지 시대와 국가를 넘나드는 음악을 펼칠 예정이다.

16일에는 캐나다 출신의 작곡가이자 즉흥 음악 연주가 레인-투쉬와 중국의 구멍 명인이자

민속음악학자 메이 한이 듀오 공연 <랜드 레인-투쉬&메인 한의 월드뮤직>을 선보인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이 해설과 사회를 맡아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전주의 아침' 마지막 공연 <시대가 전하는 춤 이야기>는 17일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일본 이시가와현의 우호 교류 협약을 통해 마련된 [일본] 해설이 있는 사자춤-이시가와현 타케베 시시마이 공연이 열린다.

이어 오후 4시 20분에는 말레이반도의 다양한 음악과 악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세계음악여행 <말레이시아>를 말레이시아 국립극장 소속 단체인 '이스타나 부다'가 전통 앙상블'의 연주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나바위성당과 전라감영에서 진행되는 공연들은 무료 관람이지만,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사전 접수 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무료 공연 사전 예약은 7~14일까지다. /장은성 기자

문복철 독창적 예술세계 만난다

전북도립미술관, '문복철:특수한 변화' 전시 30일 개막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10월 27일까지 본관 1~2전시실에서 전북미술사 연구시리즈 '문복철:특수한 변화'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2021년 천철봉, 2023년 이의주에 이어 세번째 전북미술사 연구시리즈로, 문복철 유족의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인 기증을 계기로 연구가 시작됐다. 올해 3월 14일 '문복철 미술이카이브 기증협약식'이 체결되면서 소장품 16점과 미술자료 428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문복철:특수한 변화'에서는 문복철이 대학 2학년 때 제작한 작품부터 작고 1년 전 작품까지 총 73점을 네 영역으로 나누고 개인전을 기준으로 10개의 시기로 구분했다. 1-2 전시실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른 9개 시기

의 작품을 시간 흐름에 따라 소개한다. 자료실에서 기증 작품 중에서 보존처리를 마친 4점과 함께 대학 졸업작품으로 추정되는 <폐물의 소생>의 보존처리 과정을 담은 영상과 보존연구사가 사용한 재료를 볼 수 있다.

특히 전시제목인 '특수한 변화'는 1970년대 후반 전북현대미술제와 전북현대작가회전에 참여하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현대미술이 필요하나,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복철의 의견을 압축한 것이다. 문복철은 각 지역에는 특색하고 고유한 형(型)이 있으며, 그 특색한 형을 발견하고 그것에 변화를 줘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형으로 드러내는 전 과정을 현대미술로 정의했다. 문복철은 한지를 전북지역의 특수한 형(型)을 드러낼 수 있는 기호로 선택했다.

한편, 문복철은 군산 출생으로 군산고와 흥이



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미술 최초의 실험미술단체인 '무동인'의 창립회원으로 한국미술사에서 실험미술의 대표작가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군산으로 돌아와 군산상업고등학교와 우석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한지의 여러 가지 기능을 연구했다. /장은성 기자

이경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이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이경운 대표이사는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엄혁용 교수, 전주소통협력센터 오성현 센터장을 지목했다.

캠페인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 릴레이 형식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아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김제시, '이달의 소장품' 담뱃대 전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로비서 31일까지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8월 <이달의 소장품> 전시를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뽕' 옛날, 신분을 알 수 있었던 담뱃대의 길이'라는 주제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소장품> 전시는 박물관 로비에 별도의 전시 코너가 마련되어 관람객의 특별한 관심을 유도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관람객의 증대와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 정신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총 8번 월별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4번째 전시로, 담배를 피우는 데 쓰이는 도구인 담뱃대, 재떨이, 담배합을 조명하고자 기획전을 준비했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 후 광해군 때로 알려져 있다. 담배가 전해 내려온 초기에는 흡연의 보급 속도가 빠르고 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녀노소, 양반은 물론이고 노비까지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담배를 쉽게 피울 수 있었다.

17세기 후반 가부장제적 질서가 심화하고, 담배는 기호식품이기에 상품 경제를 통해 신분을 초월하여 부를 축적하는 계층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양반층들이 평민과 천민층이 담배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못하였지만, 신분 간의 차별을 엄격히 규정하는 규율과 관습이 생기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체계화됐다.

신분에 따른 담배 문화의 형성은 담뱃대의 사용에서도 나타났다. 양반들은 평민과 구별 짓기 위하여 긴 담뱃대를 사용했으며 긴 담뱃대를 재떨이에 '탁탁' 터는 소리로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다.

담배합, 재떨이 등 기타 도구에 사용되었던 비싼 재질과 화려한 장신구 등을 통해 양반층은 위세를 표현했고, 담뱃대의 재질, 생김새를 통해 당시 신분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

정성주 감제시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선보이지 못한 이색 유물을 살펴보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주X제주 교류전' 2차 전시 제주서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오는 9월 13일까지 제주 예술공간 이아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과 공동으로 '전주X제주 교류전'의 2차 전시 <시간의 중첩, 감각적 변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간의 중첩, 감각적 변주>는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서사를 쌓아가고 있는 전주 중견작가들이 제주에 모여 상호 예술적 공감대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소이,

고형숙, 곽정우, 곽공영, 이주리, 임동식, 정하영, 한은주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해 사진, 영상, 회화, 설치 등 모두 73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 기간에 제주와 전주 지역의 예술가들이 서로의 예술 세계를 탐구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공유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편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이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일반·제한경쟁 10명 공개 채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024년 2차 공개채용을 진행하며 일반 행정과 홍보, 전산, 건축, 안전 관리, 콘텐츠 지도자 등 6개 분야에 1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으로 나뉘며 '일반경쟁' 분야에는 '일반 행정 3명', 사진 및 영상 촬영·편집 등의 '홍보 1명'을 선발한다. '제한경쟁' 분야에는 전문역량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산 1명, 건축 1명, 안전 관리 1명,

콘텐츠 지도자 2명, 장애인 1명을 채용한다. 특히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에서는 일반 행정 1명을 선발하며 일반직 6급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사회 형평적 채용 노력에도 동참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20일까지이고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등을 거쳐 10월 18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10월 28일 임용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지역 인재, 태권도 유단자 등은 서류 심사서 우대된다. /무주=전문시 기자